

해남서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1만여명 유기농 농업 실천 결의

AI 활용 첨단 농산업 융복합화

안전한 먹거리 역할·방향 모색

공연·탐방·운동회 등 행사도

전국 1만여 친환경농업인이 전남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지난 8일 해남 우של공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농업의 힘찬 비상!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슬로건)로 1박2일 간 진행됐다.

전국대회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해남군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업 비전

제시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진다.

전국대회에서는 친환경농업 비전 선포식 및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친환경농업발전 유공자 35명 표창, 전국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농자재 등 전시·판매, 친환경농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 운영, 초대기수 축하공연, 명랑 운동회, 해남 대흥사·설아다원 지역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친환경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육성과 함께 국제 유기농수출플랫폼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사랑받도록 판로 개척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업의 융복합화·스마트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최첨단 디지털 농업

기술의 선도 모델인 세계적 수준의 농생명 밸리인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해 미래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판로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군 친환경농업 공무원,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 친환경인증 목표달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준비 고용협의회

전남경진원 22일 개최...20개 업체 담당자 참석 준비상황 점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전남경진원)이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오는 22일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참가기업 인사담당자와 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협의회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지와 목표를 이해하고 참가 기업체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부권 지역 우수기업 20개 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성희 전남경진원 원장은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이번 행사가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2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우수기업 20개사가 110여명을 채용하며, 일자리정책홍보관 운영, 이력서 사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MBTI성격 유형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관광재단, 베트남서 동남아 시장 겨냥 전남관광 홍보

호치민 국제관광전 엑스포 참가

웰니스·템플스테이 뜨거운 반응

전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7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제17회 베트남 국제관광전 엑스포(ITE HCMC 2023)’에 참가해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4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열린 현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국내외 여행업계와 항공사, 유관기관 등 3만여명이 참가했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체 한국관광 홍보관 내 전남 단독 홍보 데스크를 운영하며 웰니스, 미식, 템플스테이 등 체험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전남 관광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SNS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하고, 전남관광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 시장 중 하나이다. 김영선 재단 대



호치민에서 열린 국제관광전 엑스포 전남관광 홍보 부스에 많은 인파가 몰려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이사는 “베트남은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최근 K-팝 등으로 한국에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MZ세대들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젊은 나라

”며 “앞으로도 현지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베트남 관광시장 공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에 지역거점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전국 최초...남북교류협력 등 역할

지난 8일 목포에서 전국 최초 지역거점 통일플러스센터가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남북 교류협력 지원, 통일교육 및 통일 자료실 운영, 탈북민 정착 지원 등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일괄(원스톱) 지원한다.

개관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홍률 목포시장, 공공·민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호남권 통일센터 앞마당에서 축하 공연, 업무협약식, 개관 기념사,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 2021년 착공, 사업비 79억60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970㎡ 규모로 건립됐다. 일 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평화통일 자료실, 통일체험

전시관, 광장 등을 비롯해 다목적 요리교실, 대회 의실, 교육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갖췄다. 남북교류 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전남하나센터 등 지원기관까지 입주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9사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평화의 땅 전남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평화통일 기반시설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통일부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추석 선물 할인 판매

13일부터 3일간 전남도청서 특판

전남도가 추석 대목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일간 도청 운선도홀(1층 로비)에서 정보화마을 생산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2023년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에선 나누배꽃마을, 광양 매화마을, 순천 낙안배이팝마을

등 전남 32개 정보화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한다.

주요 품목은 배, 사과, 매론, 고사리, 건어물세트, 버섯, 굴비, 송편, 청매실선물세트, 건강식품 및 가공식품 등 100여 품목이다. 행사 기간 마을 별로 평상시 가격 대비 최대 20% 할인, 택배 대행 서비스, 시식코너 운영, 구매자에게 선착순 장바

구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은 정보화마을 인빌쇼핑(www.invil.com)이나 남도장터(www.jnmall.kr/정보화마을특산품관)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정금속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소비자에게 우수 농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기업 간담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남도도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이 지난 5일 목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11개 시·군 72개사 기업 대표 및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관련 교육, 네트워킹, 멘토, 희망적금, 주거비, 인센티브 등을 안내하고 기업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전

남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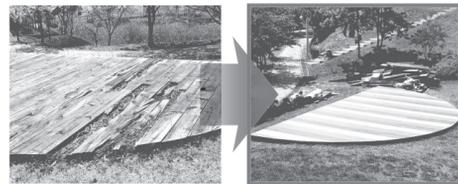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